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올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탈출기 24:3-8 | 제2독서 | 히브리서 9:11-15 | 복음 | 마르코 14:12-16.22-26

◎말씀 < 주님처럼 먹히는 신앙인이 되어야 >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무상급식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청소년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권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급식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으니 씁쓸할 따름입니다. 전에는 먹이느냐 먹이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무얼 먹이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무얼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과거와 달리 우리 주변엔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 넘쳐납니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유전자 조작식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농약 범벅인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중금속 성분인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뿐 아니라 우리가 먹을 동식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오염되고 우리 건강도 나빠져서 정신과 마음마저 허약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 자식이 나를 닮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을 것입니다. 먹을 게 없다면 자기

살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느님 역시 우리가 당신이 마련해준 음식을 잘 먹고, 당신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썩어 없어질 양식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하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당신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체성사는 미사에 참례해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미사는 왜 주님이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난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 식탁에서 배 불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았던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모든 이가 이 풍성한 잔치에 참례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6월 5일(화)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900.00 \$ 825.00
6월 6일(수)	연중 제9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 소 후원 사회복지	\$ 90.00 \$ 100.00
6월 7일(목)	연중 제9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주일학교	\$ 98.00 \$ 0.00
6월 8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오후7시 (구역미사)	원캠페인 사제관건축	\$ 0.00 \$ 100.00
6월 9일(토)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오후7시30분	합 계	\$ 4,113.00
6월 10일(일)	연중 제10주일	오전 11시 (야외미사)	미사참례자	아동: 11명 성인: 156명
교무금봉헌자	엄규홍.김진태(5-6월)김재선.정행순.심은희(4-6월)김은수.김근수.김주원(4-5월)김귀태(1-5월)엄영자(4월)김형진.김에릭.임상일,김영숙(5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성체조배란?

6월은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기로 교회가 정한 달로서 예수성심성월이라고 합니다. 성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리신(요한 19,34 참조) 심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신 육화의 신비와 수난과 죽음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체조배란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으로 바치는 신심행위를 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감실(龕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수난과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흠송하는 가운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체조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1코린 10,17)

그렇다면 감실은 무엇입니까? 감실이란 성당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감실 안에는 성체를 담은 성합이 있으며 그 밑에는 하얀색 성체포가 깔려 있습니다.

감실은 주로 성당의 제대 중앙이나 제대 옆에 있으며, 성당 안에 단 하나의 감실만을 둡니다.

감실 앞에는 성체를 모셔두었음을 알리고 성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빨간색의 작은 램프(성체등)가 켜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감실 앞

을 지나갈 때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깊은 절을 합니다. 사제가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이유는 첫째, 성당에 올 수 없는 ‘병자’를 방문하여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흠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알폰소는 성체조배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15분간의 성체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신심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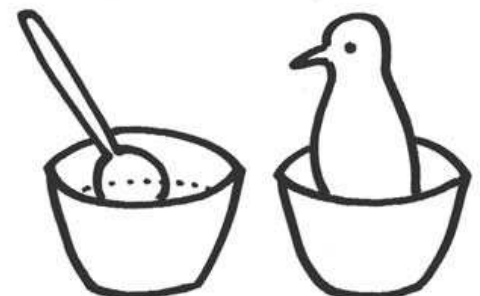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김미숙.모니카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송돈희.요셉
연	진.레이션의 영혼	김용문.요한	생	(80세생일)강석만.요셉의 영육간 건강	여성회
			생	전율리아나의 영육간 건강	김헬레나

◎내 밥그릇의 절반◎

“이제부터 나는 매끼 내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 놓고 먹기로 했다.

비록 너나 어려운 이웃에게 그것을 직접 나눌수는 없더라도 누가 너를 위해 늘 자기몫의 절반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강은교.클라라(시인)김복태.사도요한(화가)



간  
장  
중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b>신세계여행사</b>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	---	--	---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b>JIMMY KIM 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	--	--

--	--	--	--

